

델(Dell)에 데이터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

모든 산업에서 고성능 워크로드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성장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 다릅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확장형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 필요한 제어력과 유연성, 거버넌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IT 팀은 서로 다른 벤더의 다양한 도구를 억지로 조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은 단절되고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델이 부족한 점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델은 여전히 PowerStore와 PowerFlex 어레이를 최신 솔루션처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시대를 지나온 구식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제품들은 여러 요소를 덧붙인 구조 위에 설계되어 있어, 부하가 커지면 쉽게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용자들은 들쭉날쭉한 성능, 복잡하고 종종 서비스 중단을 초래하는 업그레이드, 불명확한 라이선스 체계, 그리고 뒤엉킨 관리 도구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델은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부품을 조합해놓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금의 변화된 현실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설계해 왔고, 그 결과 고객의 성장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되고, 복잡함은 덜하며, 환경 변화에도 쉽게 적응하는 '진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또는 그 둘을 함께 쓰는 환경에서도 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중단이나 위험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통째로 바꿀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관리 도구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동시에,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인프라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¹⁰. 보다 전략적인 방향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며,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통합 스토리지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 바로 퓨어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혁신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다이렉트플래시(DirectFlash®), 퓨어1(Pure1®), 에버그린(Evergreen®)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어떠한 타협 없이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마찰을 줄이고 가시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인프라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버와 프린터 중심의 과거 기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델과 달리, 퓨어스토리지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낡은 시스템을 억지로 조합해 버틸볼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한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그 길을 함께할 준비가 된 파트너입니다.

확신이 필요하신가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에버그린 아키텍처로 SLA 기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반면, 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다운타임, 성능 저하, 예측 불가능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IT의 신뢰성을 넘어,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스토리지 경험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SLA 기반 보장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입니다.

이러한 SLA 보장의 중심에는 에버그린(Evergreen®)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에버그린//포에버(Evergreen//Forever™)와 에버그린//원(Evergreen//One™)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에버그린//포에버는 중단 없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토리지 인프라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대 간 호환성을 보장해, 강제적인 리프레시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용량 재구매 없이도 점진적인 시스템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버그린//포에버는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SLA 요소인 가용성, 성능, 운영 연속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스토리지 서비스형 (STaaS) 모델인 에버그린//원은 이러한 가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립니다.

업계 최초로 6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장된 SLA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스토리지(Storage as a Service) 솔루션입니다.

99.9999% 가용²

인프라는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며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되며, 가장 까다로운 SLA 요구 사항까지 충족할 수 있는 가용성 목표가 수치로 명확히 제시됩니다.

성능

워크로드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레이턴시와 IOPS 기준으로 성능이 측정되며, 예측 가능하고 보장된 성능으로 제공됩니다.

계획된 다운타임 제로

업그레이드와 확장은 중단 없이 수행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 정기 유지보수 일정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퓨어스토리지는 테라바이트(TB)당 전력 사용량에 대한 효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에버그린//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까지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예비 용량

퓨어스토리지는 온디맨드 방식의 예비 용량(일반적으로 25%)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 사전 계획 지연이나 용량 초과 없이 즉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³

구축 속도

스토리지는 신속하게 프로비저닝되며, 배포 시간에 대한 서비스 수준 목표를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보장합니다.

퓨어스토리지가 제공하는 SLA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퓨어스토리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명확한 결과가 따르는 계약상 의무입니다.

델은 이와 같은 모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ProSupport 기반의 라이프사이클 연장 프로그램 등은 성능이나 효율, 사용량에 대한 보장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력과 냉각 관리부터 확장 지연, 리프레시 주기까지 모두 고객이 알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만큼 운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은 커지고, SLA를 놓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아키텍처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퓨어스토리지는 RAID 재구성, 수동 리밸런싱, 업그레이드 시 복잡한 시스템 튜닝 없이 운영이 가능한 무상태(stateless), 모듈형 아키텍처를 유지합니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도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부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델의 전통적인 아키텍처는 시스템 리프레시나 확장 때마다 운영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용성, 성능, 에너지 효율성, 구축 속도 전반에 걸쳐 명확한 결과를 보장하는 SLA를 제공하는 곳은 퓨어스토리지뿐입니다.

델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버그린//원을 통해 퓨어스토리지가 전달하는 가치는 단순히 스토리지 제공을 넘어섭니다.

하드웨어의 소유와 관리 부담 없이, 확실한 결과 보장과 운영의 투명성, 끊임없는 현대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비즈니스에서 가용성과 에너지 절감, 빠른 확장이 중요하다면, SLA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공급자는 퓨어스토리지뿐입니다.



2 퓨어스토리지 다이렉트플래시(DirectFlash)는 델의 SSD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델은 여전히 내장 컨트롤러와 구식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이 포함된 범용 SSD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SSD는 아키텍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냅니다. 각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성능은 쉽게 분산되고, 지연 시간은 늘어나며, 자원 활용도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델은 시스템 차원에서 플래시 동작을 완전히 제어하거나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플랫폼의 확장성과 부하 환경에서의 일관된 성능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이렉트플래시 모듈(DirectFlash Modules, DFM)은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을 아예 제거했습니다. 각 드라이브에 내장된 개별 컨트롤러에 의존하지 않고, 플래시 관리 기능을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의 퓨리티(Purity) 운영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덕분에 데이터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고, 보다 지능적인 마모 균등화(wear leveling)와 낮은 쓰기 증폭(write amplification), 그리고 어레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저지연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의 효과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퓨어스토리지의 다이렉트플래시 아키텍처는 델의 SSD 기반 플랫폼보다 테라바이트(TB)당 최대 54%까지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⁴ 고장률도 단 0.15%에 불과해 범용 SSD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⁵ 고정된 드라이브 용량에 제한되지 않아, 스토리지 밀도를 높이고 랙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가비지 컬렉션, 장애 복구 등 모든 핵심 플래시 작업이 소프트웨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되므로, 관리자는 드라이브 수준의 분산된 제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체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델은 서드파티 SSD 벤더에 의존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종속성이 생기고, 장기적인 아키텍처 유연성 또한 제한됩니다. 드라이브 간의 제한적인 호환성으로 인해 고객은 지연 시간의 예측 불가, 성능의 불일정성, 그리고 유휴 용량이 방치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이 확장되고 워크로드가 복잡해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반면, 다이렉트플래시는 단일 통합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능형 제어와 실시간 대응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 간 분리도 없고, 구형 SSD의 한계로 인한 병목도 없으며, 성능이나 효율성에서도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강력한 플래시 성능은 물론, 인프라를 슬림하게 유지하고 미래 확장에 유리한 단순성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퓨어스토리지의 다이렉트플래시 모듈은 범용 SSD를 능가하는 성능과 수명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고장률은 최대 4배 낮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급 플래시 최적화를 통해 미디어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전력 소비와 랙 공간 사용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⁶ 퓨어스토리지는 플래시를 중앙에서 제어함으로써,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플랫폼을 구현하고,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급증하는 데이터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퓨어스토리지의 AIOps는 간편하고 통합적입니다 — 델의 복잡한 틀셋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AI 기반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는 인프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 예측 분석, 그리고 지능적 관리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퓨어스토리지의 '퓨어1'이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AIOps 플랫폼으로 설계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퓨어1은 설계 초기부터 스토리지 인프라를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일 통합 제어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도구나 숨겨진 비용, 일관되지 않은 사용자 경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퓨어1은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용량 예측,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된 운영 계획까지 모든 기능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 환경을 분석해, 리스크는 줄이고 가동 시간은 높이며 IT 운영을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리자는 분산된 툴 간 전환 없이, 통합된 환경에서 전체 가시성,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이 시스템 전반에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퓨어1은 정책 기반의 시스템 관리, 사전 알림(alert), 반복 작업 자동화, 그리고 안전한 인프라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근본 원인 분석을 가속화하며, 전 어레이에 걸쳐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스토리지를 위한 GenAI 코파일럿을 통해 퓨어1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일로에 갇혀 있던 지식을 통합된 인텔리전스로 전환함으로써,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델의 접근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 통합된 플랫폼 대신, 델은 제품 라인마다 서로 다른 독립형 도구 모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델의 AIOps(이전 명칭: CloudIQ)는 텔레메트리, InsightIQ는 분석을 담당하며, PowerStore Manager와 Unisphere는 각각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공동된 인터페이스나 일관된 운영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된 후 후속적으로 결합된 구조이므로, 델의 고객은 환경 전반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 반복되는 작업,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델은 새로운 도구를 제품 라인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동일한 기술을 이름만 바꿔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술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델의 대표적인 AIOps 도구는 자사 웹사이트 내에서도 CloudIQ, Dell AIOps, Dell APEX AIOps Infrastructure Observability 등 최소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델 솔루션의 명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델의 대표 AIOps 도구는 퓨어1에 비해 범용성과 사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제품별 통합이 필요하고, 전체 스택에 대한 가시성이나 자동화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연어 기반 인터페이스도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맥락, 자동화, 제어 기능은 부족합니다. 그 결과, 델의 도구는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퓨어1은 운영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AIOps 접근 방식을 통해 IT 팀의 역량을 높이고, 인프라 관리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며,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퓨어1은 복잡함 없이 스마트한 스토리지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델이 고객에게 여러 개의 분리된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게 하는 반면, 퓨어1은 AI, 자동화, 인사이트를 하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통합해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퓨어스토리지의 NPS 점수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메타(Meta), 컴캐스트(Comcast), 포드(Ford), AC 밀란(AC Mila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과 조직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퓨어스토리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퓨어스토리지와 함께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탁월한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여정 전반에 걸쳐 꾸준히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AC 밀란의 알레산드로 비타(Alessandro Vita)는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우리는 경기장 안팎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⁷

이런 고객 충성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이는 정밀하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NPS(Net Promoter Score)는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글로벌 표준 지표로, 퓨어스토리지는 이 지표에서 81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고객 충성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외부 감사를 거쳐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⁸ 참고로, 기술 업계 평균은 35점에 불과합니다.⁹ 이 점수는 일회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한 고객 만족과 신뢰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고객 성공에 대한 오랜 헌신과, 그 성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퓨어스토리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 델은 자사의 NPS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벤치마크인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의 독자적인 NPSx 시스템에서 ‘2성급’ 등급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¹⁰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평가 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 전반의 비교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델의 고객 만족도가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기업의 차이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NPS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인 개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수천 건의 고객 성공 사례와 13,000건이 넘는 실제 구축 사례로 그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델은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객 경험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표면적인 사양만으로는 제품 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IT 업계에서, 진정한 차별화 요소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고객 경험입니다. 퓨어스토리지를 직접 사용해본 고객들은 델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용자 리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가트너(Gartner®)의 피어 인사이트(Peer Insights™)에서도 퓨어스토리지는 모든 항목에서 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¹¹ 퓨어스토리지가 꾸준히 신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파트너십, 안정성,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철학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10년 넘게 업계 최고 수준인 NPS 81점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업계 평균 점수가 35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수치는 고객 신뢰와 만족도 측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포드](#), [컴캐스트](#), [NASA](#)와 같은 고객들이 퓨어스토리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델이 주장하는 ‘2성급’ NPSx 평가는 신뢰도, 일관성, 책임감 모두 부족합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 델은 통합 플랫폼이 아니라, 각기 흩어진 제품들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델은 자신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보이길 원하지만, 실제 아키텍처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PowerFlex와 PowerStore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묶어놓은 단순한 제품 조합에 가깝습니다. 수작업 통합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제어 플랫폼이나 통합된 소프트웨어 환경이 부재한 가운데, 고객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플랫폼은 복잡성을 감추고, 자동화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지만 델의 제품들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델의 각 제품은 저마다 다른 관리 인터페이스와 업그레이드 경로, 그리고 고유한 운영상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owerStore Manager, Unisphere for PowerMax, Dell AI Ops 등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고객이 마주하는 건 일관되지 못한 단편적인 사용자 경험입니다. 공통된 텔레메트리도, 전체를 아우르는 자동화 프레임워크도, 아키텍처 일관성도 없습니다. 고객은 분산된 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직접 조합해야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전문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해야 할 본질적인 단순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오래된 기술적 부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퓨어스토리지는 설계 단계부터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퓨어스토리지 플랫폼은 블록, 파일, 오브젝트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제공하며, 퓨어1을 통해 단일 제어 환경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전반에 걸쳐 일관된 자동화, 무중단 업그레이드, 실시간 가시성을 지원합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엣지 환경, 어디에서든 동일한 운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랫폼 중심 설계는 더 빠른 확장, 더 쉬운 관리, 그리고 더 낮은 운영 리스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 구성 요소나 호환성 공백, 단절된 사용자 경험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 중단이나 성능 저하 없이, 고객은 언제든지 인프라를 유연하게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델이 내세우는 플랫폼 전략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개별 하드웨어 제품군 중심의 운영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톨과 라이선스 체계,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업그레이드 경로로 운영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현대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위해 통합되고 지능적으로 설계된,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델은 여러 제품을 조합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비즈니스에 일관되고 확장 가능하며, 지능적인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면, 델이 제공할 수 없는 진짜 플랫폼, 그 해답은 퓨어스토리지입니다.



결론: 선택은 분명합니다.

델은 과거의 IT 환경에 맞춰 비즈니스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오늘날의 인프라는 확장성, 자동화, 플랫폼 수준의 단순함을 요구하며, 기존 레거시 설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델은 분절된 아키텍처와 범용 부품에 대한 의존, 통합되지 않은 관리 도구로 인해 고객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업그레이드 방식과 고객 만족에 대한 접근 방식조차 과거에 머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미래를 위해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다이렉트플래시 아키텍처부터 퓨어1 AIops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소를 복잡성 해소, 유연한 확장성, 지속적 혁신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무중단 업그레이드, 실시간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정의 제어, 그리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 모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완전 통합 플랫폼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전력 소비는 더 낮고, 안정성은 더 높으며, 운영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여기에 10년 넘는 고객 성공을 바탕으로 한 NPS 81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에 반해 델은 명확하지 않은 지표와 임시로 결합된 솔루션들로 성능의 한계를 감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고 단순하며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단순히 더 나은 대안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기 위해, 현대 IT 리더들이 선택하고 신뢰하는 플랫폼입니다.

세부 정보

<https://www.purestorage.com/products/dell-emc-comparison.html>

- <https://blog.purestorage.com/perspectives/net-promoter-score-is-as-much-about-you-as-it-is-about-us/>
-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df/en/datasheets/ds-pure-storage-purity.pdf>
-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df/en/solution-briefs/sb-business-evergreen-one.pdf>
- <https://blog.purestorage.com/purely-educational/demystifying-directflash-modules-vs-ssds-vs-hdds-vs-hybrid/>
- <https://blog.purestorage.com/perspectives/escaping-the-ssd-trap-pure-storage-directflash-module/>
- <https://www.purestorage.com/knowledge/what-is-directflash-and-how-does-it-work.html>
- <https://www.purestorage.com/customers/ac-milan.html>
- <https://blog.purestorage.com/perspectives/net-promoter-score-is-as-much-about-you-as-it-is-about-us/>
- <https://www.surveymonkey.com/curiosity/what-is-a-good-net-promoter-score/>
- <https://www.delltechnologies.com/asset/en-hk/products/storage/industry-market/value-of-customer-experience-improvement-done-right.pdf>
- <https://www.gartner.com/reviews/market/primary-storage-platforms/compare/dell-technologies-vs-pure-storage>

[purestorage.com/kr](https://www.purestorage.com/kr)

02-6001-3330

